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 최선 순창고추장불고기 대박났다

남원시, 실과소읍면동장 간부회의서 산정기준 공유 · 최대 확보 방안 논의

남원시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남원시는 9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실과소읍면동장 간부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3.4% 감소한 2.2조원을 감액교부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 자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시 세입의 47%를 차지하는 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고, 올해는 재추계에 따라 15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13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에 적극 대응하여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설되는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항목에 대해 전 부서 지방소멸·저출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등으로 2025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



남원시는 9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실과소읍면동장 간부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 산정 때 국·도비로 확보된 보조사업마저 100% 페널티로 감액 반영하여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지방재정대상

지방보조금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으로 자체 노력 개선과 보정수요 반영을 위해 남원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이원일 셰프 협업 개발... 누적 매출액 11억4000만원

순창군이 지난해 이원일 셰프와 협업으로 개발한 순창고추장불고기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2023년 8월부터 순창의 맛이레, 함양 식당, 해뜨는 집 등 3개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순창고추장 불고기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방문객 75,363명을 돌파, 누적 매출액 11억 4천만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창고추장불고기’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 독특한 풍미에 있다. 순창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과 깊은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소비자들의 미각을 사로잡았다. 이로 인해 순창은 단순한 농촌 지역을 넘어 미식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순창삼합’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궁, 녹원, 금은옥, 뜨란재 등 4개 식당에서 2023년 10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순창삼합은 전월 대비 33%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메뉴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은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5년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디저트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순창의 농산물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략으로 주목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 지역의 숨겨진 맛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식 개발을 넘어 순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미식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우수’

임실군, 농촌진흥청장 표창 수상... 국비 1억원 확보

임실군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업기계화 촉진 공공 지자체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7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임대료, 정부 정책사업 참여 등 20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군은 평가 항목 20개 중 15개의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에 이어 농촌진흥청장 표창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관내 4개소의 임대사업소에 22종 810대의 농기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농로 파종기 등 20종 73대의 신기종 농기계 확보, 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외에도 농작업 대행사업도 활발히 추진했다. 하계 조사료, 논농 수확 등 4개 항목에서 460여 농가 220ha의 농작업 대행을 완료하여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확보한 사업비



(국비) 1억원 등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과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 군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나가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영농을 꾸준히 이어오신 농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임실군이 농업기계화 촉진을 주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희망농업의 정책 실효에 맞게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3대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전기히터, 전기매트, 전기열선 등 3대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겨울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으로는 △제품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확인하고 정격 용량에 맞는 멀티탭을 사용 △전기히터와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는 가연성 물질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외출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 △전기열선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오래된 제품은 교체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겨울철 난방용품은 생활에 필수적인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다”라며, “작은 실정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승현 서장은 안전수칙 준수를 “개인의 안전을 넘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며, 작은 관심과 주의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위한 적극행정 교육

순창군은 지난 6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100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위촉한 김호주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혁신적인 정책 발굴,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등 다각도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은 실제 사례를 통한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혁신적인 정책 발굴,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등 다각도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혁신적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군의 행정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자원봉사자 대회 성황리 개최

2024년 임실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6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에서 열렸다.

임실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과 봉사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로 행복 임실 만들기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식전 축하공연, 봉사활동 영상



시청, 우수봉사자 시상, 힐링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봉사자에 대한 군수 표창은 한 국자유총연맹임실군여성회 김미자 등 4명, 군의장 표창에 임실청년회의소 최민진 등 2명이 수상했으며, 활동 동

영상 시청으로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다가올 2025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숙 센터장은 “올 한 해 동안 사랑과 나눔 활동을 펼쳐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에도 군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기후 위기 속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한 탄소중립운동, 도매 및 주거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나눔, 온기 나눔 캠페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을 펼쳐주신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자원순환 업무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재활용 추진실적, 폐기물 처리 역량 등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남원시는 분리배출 환경개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위해 환경개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 지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남원시는 자원순환 환경 업무의 우수 지자체로 부각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